

[일반 논문]

1950년대 이원수의 동화·아동소설 연구

A Study on Children's Stories and Juvenile Novels

by Lee Weonsu in 1950

이충일

(단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박사과정)

차 례

- | | |
|------------------------------|-------------------|
| 1. 들머리 | 1) 현실의 응전과 환상성 |
| 2. 전후 문단의 동향과 이원수 | 2) 혈육의 그리움과 자기 성찰 |
| 3. 1950년대 이원수 동화·아동소설의 존재 양태 | 3) 사랑의 전파와 서정적 진실 |
| | 4. 마무리 |

1. 들머리

아동문학사 100년을 관통하는 리얼리즘의 중심에는 이원수가 있다. 방대한 분량의 동시, 동화뿐만 아니라 평론을 통해서도 현실 반영의 작가정신은 빛을 발해왔다. 이재철은 “상업적인 문학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진정한 어린이 像을 구현하는데 노력했다”¹⁾고 평가했으며, 원종찬은 “수난의 민족현실에 아로 새겨진 서민 어린이 삶의 역사이다”²⁾라고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역사의 격동기에 당당히 맞서 온 오연한 기개야말로 의당 계승되어 마땅한 정신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이 시대 최고의 아동문학가’라는 선언적 구호에 걸맞는 촘촘한 연구 성과가 누적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동시에 비해 동화나 아동소설

1) 이재철 「兒童文學이론은 무엇인가」, 『兒童文學의 理論』, 螢雪出版社, 1983, p.11.

2) 원종찬, 「이원수와 마산의 소년운동」, 『아동문학과 비평정신』, 창작과 비평사, 2001, p.337.

의 연구는 특정 시대, 일부 작품들에 지나치게 국한되어 있어 전체를 꿰어 논결(論結)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시대별 작품들의 특징을 하나하나 꼼꼼히 제시해 감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한다. 특히나 거대한 실체일수록 미시적 접근과 열린 소통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지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그의 작품세계를 일부분만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듯 전체를 한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우리 문학사의 단절기였던 1950년대의 이원수 문학작품에 주목하고자 한다. 중촌수³⁾가 이원수의 동화·소년소설을 연구하며 전쟁문학을 부분적으로 언급하였고, 선안나⁴⁾는 1950년대 아동문학에 있어 반공주의가 적용 전개되는 양상을 실증적으로 밝혀내는 과정에서 이원수의 전후 창작상황과 작품세계를 분석하였지만 1950년대 이원수 작품만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전쟁은 가장 강렬한 우리 문학의 재편성을 가지고 왔다. 전쟁이 일으킨 기존 체계의 전복은 변화된 사고를 가져왔으며, 이는 언어의 변화로 이어졌다. 더욱이 이원수는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존재했던 인물이었기에 작품 세계를 논하는 데에 있어 1950년대는 요주의 시기라 할 만하다.

이원수가 겪었던 혈육과의 이별이나 이념적 갈등들은 우리 민족의 아픔을 함축해 놓은 것들이다. 소외된 아이들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가난'이라는 경제적 탄압과 '이데올로기'라는 규율 권력 앞에서 어떤 대응 양상을 보였는지는 당시 작품들을 통해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본고는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지 못했던 이원수의 1950년대 작품들의 존재 양태를 두루 살펴봄으로써 창조적 존재가 전쟁의 아픔과 분노를 어떠한 양태로 발화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3) 중촌수, 「이원수 동화·소년소설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4) 선안나, 「1950년대 동화·아동소설 연구 -반공주의를 중심으로」, 성신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2. 전후 문단의 동향과 이원수

1950년대는 한국전쟁으로 시작하여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대’와 ‘계몽’의 역사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일거에 파산을 맞고 말았다. 대지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까지도 침몰로 내몰았던 1950년대는 민족 삶에 있어 단절기이자 휴지기였던 셈이다.

참혹하기는 예술을 하는 문학인들도 마찬가지였다. ‘문학을 하는 일’이 곧 ‘생활을 영위하는 일’이었으며, 가족의 생존을 지켜내는 수단이 되었기에 예술인으로서 지조와 양심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김송은 비참했던 전후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良心이니 愛國이니 불으짓는 것도 어느 程度 自己와 그 家族들이 最低生活을 保持할 수 있는 環境에서였지 굶주려 가지고는 그러한 精神도 痲痺되어 混亂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⁵⁾

이러한 내핍 생활은 출판시장의 상업주의를 부추길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요소였다. 여기에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기 보다는 잠시라도 잊고 싶어하는 대중들의 이해관계가 들어맞으면서 통속적이고 감각적인 독물이 범람하게 되었다. “통속대중화는 문단 자체의 과당적 분열이 그 주원인이라기보다 당시 사회의 풍조나 생활조건의 혼란이 빚어낸 부작용이라는 게 더욱 타당했다”⁶⁾는 이재철의 말은 이 같은 현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에 규율적 권력이었던 반공이데올로기의 강력한 감시망은 현실을 외면한 피안의 욕망과 구호 문학을 양산하게 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각종 매체에 ‘반공주의’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독자나 문학성은 반공의 힘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작품세계나 성향과 상관없이 대다수의 작가들은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크고 작게 기여하는 양상을 보인다.⁷⁾

5) 김송, 「전쟁하의 단상 (나의 피난일기장에서)」, 《新潮》, 1951. 6. p.148.

6) 이재철, 『아동문학개론』, 서문당, 1996. p.77.

아우르자면, 1950년대의 아동문학은 한국전쟁이 만들어 낸 반공주의와 통속적 상업주의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대를 일컬어 ‘1960년대의 태반’이라 명명할 수 있는 것은 이원수와 같이 문학성을 견지하기 위해 현실과 고투하며 묵묵히 정진해 나가던 작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원수는 한국 전쟁으로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본인은 사상적 검증대에 올라야 했다. 6월 28일 인민군이 서울에 침공했을 때 서울을 탈출하지 않고 시설접수위원으로서 인민군에 협력하였던 그는 서울이 국군에 수복된 직 후, 최병화⁸⁾의 독촉에 따라 북쪽을 향해 피신을 떠났다. 左는 북으로 右는 남으로 향했던 당시 상황으로 보건대 주로 좌파적 성향의 문단⁹⁾에서 활동했던 이원수가 월북을 두고 고뇌를 거듭했음은 자명해 보인다.

그러다 다시 발길을 돌려 서울로 돌아왔을 때 이미 자식들을 잃게 된 사실을 알게 되고 둘도 없는 지인 최병화를 폭격으로 잃게 된다. 1952년 우연히 제주도의 고아원에서 장녀 영옥을 찾게 되었으나 상옥과 용화는 끝내 만날 수가 없었다. 이 후 서울 잔류에 관해서 철도경찰에 지수를 하는데 이 때 문우 김영 일이나 김팔봉 등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보존하게 된다. 박흥군의 증언에 의하면 이원수는 이 날 이후 일생 동안 일 년에 한 번씩 철도 인천경찰서 형사의 방문을 받고 일평생 외국에 나갈 수도 없었다.¹⁰⁾ 게다가 1952년 당시는 서울에 잔류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복 군인들에 의해 불순분자로 내몰렸던 시기¹¹⁾였으며, “저기 빨갱이가 간다는 뒷손가락질 한번으로 그 자리에서 총을 맞고 즉사한 사례도 있었다”¹²⁾고 하니 이원수가 느꼈을 생존의 위협을 능히 짐작해 볼 만 하다.

7) 선안나, 앞의 논문, p.42.

8) 이원수와 함께 박문출판사에서 일하고 인민군에 협력했던 동화작가로, 대표작 『즐거운 메아리』(1949), 『즐거운 자장가』(1950)가 있다.

9) 이원수는 좌파의 대표 문단이었던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을 거쳐 조선문학가 동맹에 합류하였다. 원준찬, 「이원수 판타지동화와 민족현실」, 『아동문학과 비평정신』, 창작과 비평사, 2001, p.121.

10) 아동문학가 박흥군(1919~)의 증언에 의함.

11) 한강 다리가 끊겨 서울에 잔류할 수밖에 없었던 사학자 김성철의 증언에 의하면 “군물과 감격으로 국군과 유엔군의 서울 입성을 맞이하니 뜻밖에 많은 남하한 애국자들의 호령이 추상 같아서 정부를 따라 남하한 자기들만이 애국이고 합물 지구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불순분자로 내몰았다.”고 한다.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50년대편 1권), 인물과 사상사, 2004, p.119에서 참고.

12) 박완서의 증언. 강준만, 위의 책, p.121.

이렇듯 전쟁이 작가 이원수에게 남긴 것은 적을 이롭게 한 반역자라는 오명과 자식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인민군 시설접수위원’이란 주홍글씨는 그를 더욱 혹독한 반공이데올로기의 검열 대상으로 내몰았으며, 끊임없는 존재의 위협으로 작용했다. 또한 자식을 잃은 슬픔은 자신에 대한 원망과 전쟁에 대한 미움으로 증폭되어 나타났다. 국가권력에 허수히 대항 할 수 없는 검열의 대상이었기에 1950년대 그의 작품에 대한 논의는 더욱 흥미롭다 할 수 있다.

3. 1950년대 이원수 동화·아동소설의 존재 양태

1950년대에 발표된 이원수 동화와 아동소설은 총 44작품¹³⁾으로 4작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편이다. 필자는 이 작품들의 존재 양태를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1) 현실의 응전과 환상성

이원수는 고통 받는 아이들 편에서 냉철한 눈으로 현실을 응시했던 우리 아동 문학계에 몇 안 되는 귀중한 인물임에 분명하다. 불완전한 해방 공간을 ‘어항 속 나라’로 보고 완전한 해방을 꿈꾸었던 「숲속 나라」(1948·소년), 끝나지 않은 전쟁의 공포를 플롯의 치밀한 전개와 생생한 심리묘사로 그려냈던 「민들레의 노래」(1960~61·새나라 신문), 동포에 총부리를 겨누었던 우리 민족의 모습을 ‘슬픈 애국자’라는 상징적 수사를 끌어 올린 「메아리 소년」(1964·가톨릭소년)이 바로 그러했다.

그런데 1950년대는 다른 시기와 비교하여 현실을 마주하는 자세가 사뭇 달랐다. 직설적인 화법을 자제하고 환상성¹⁴⁾을 통해 현실을 빗대고 있다는 점이

13) 본 연구는 단행본 발간 시기가 아닌 발표 시기를 기준으로 하였다. 단행본 발간 시기로 본다면 53년에 출간된 『숲속 나라』와 『오월의 노래』가 포함되어야 하나, 두 작품 모두 49년에 이미 『어린이나라』와 『진달래』에 발표된 적이 있어 제외한 것이다.

바로 그러하다. 특히 일상적인 소재를 벗어나 시대정신을 담아내고자 했던 작품들을 보면 한결같이 환상성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성향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

1953년 7월, 한국전쟁이 휴전된 이 후에는 오히려 그 강도가 높아져서 좌익이라면 그 가족, 친지까지 검거 처형당하고, 심지어 마을 주민 전체가 사살, 소각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반공만이 유일한 생존의 길임을 터득하게 되기에 이른다.¹⁴⁾ 1950년대에 들어 좌파 계열의 작가들이 일체 사라지고, 반공의 전신갑주를 입고 등장한 새로운 문인들로 인적 체계가 완전히 교체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원수는 서울을 북이 차지했을 당시 인민군 시설접수위원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국가권력의 이데올로기적 조작이 생존논리로 내면화되었던 시기에서 환상성이야말로 현실세계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 공간이었을 터이다.

그의 환상성을 도피가 아닌 현실 응전의 양식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반공주의라는 체제순응에 대한 ‘거스르기’에 있다. 거스르기의 지점에는 선과 악의 해체와 올바른 역사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들이 「꼬마옥이», 「달나라의 어머니», 「정리와 오빠», 「큰 세상과 작은 세상», 「아이들의 호수», 「뽀꾸기 소년», 「그림 속의 나», 「파란 구슬», 「춤추는 소녀», 「꽃마차», 「감장 나비」이다.

그 중 대표작인 「꼬마옥이」는 일곱 가지의 각기 다른 에피소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세 번째 에피소드인 ‘옥이와 자장가’는 심리적으로 투사된 화자의 입을 빌어 딸을 잃은 슬픔과 전쟁에 대한 미움을 드러내고 있다.

—내 아기는 세 살! 전쟁이 앓아 갔다! 당신 아기는 살아 있는데……. 아! 분하다.

14) 여기서 환상성은 장르보다는 표현 양식으로서 일컫는 의미이다. Rosemary Jackson에 의하면 “환상은 장르로서가 아니라 양식으로 보아야 한다. 양식이란 서로 다른 시기에 씌어진 다양한 작품들 밑에 깔려 있는 공통의 구조적 특질들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다”고 말한다. Rosemary Jackson, 『환상성』,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문학동네, 2001, p.16.

15) 이기형, 「빨치산 사령관 이현상(하)」, 《말》, 1989.2. p.137.

(중략)

“자장가를 부르면 내게도 우리 아기가 나타나 보일까?”

“당신이 남의 아기를 죽이지 않았다면!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면 당신도 자장가를 부르면 나타나 보이겠지.”¹⁶⁾

이 부분은 이원수의 전쟁관이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장면이다. 화자는 자신의 아이를 그리워하는 유엔군 병사에게 분노를 느끼면서, 남의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면 자장가를 통해 그리운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분노의 대상이 인민군이 아닌 유엔군 병사에게 있다는 점이다. 죄는 상대적일 수 없기에 남한이나 북한, 유엔군 모두가 폭력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진실이다. 그러나 1950년대 발간된 잡지와 작품들 대부분이 반공이데올로기의 자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¹⁷⁾는 사실에 견주어 볼 때, 자명한 진실마저도 당대의 지배 담론을 거스르는 행위가 되기에 충분했다.

「꼬마옥이」가 인형의 부활을 통해 2차 세계를 형상화 했다면, 아동소설인 「아이들의 호수」는 죽음의 세계를 2차 세계로 설정하고 있다.

술주정뱅이로 늘 무섭게만 구는 아빠 때문에 용이는 집에 있는 것보다 집구경을 하거나 학교에 가는 것을 더욱 좋아한다. 그러나 아이들이 모두 싫어하는 일봉이와 싸운 일로 용이는 선생님에게 큰 꾸지람을 받는다.

아이들이 나중에 수군거렸다.

“일봉이 아버지는 무섭다더라. 선생님도 꿈쩍 못 해. 일봉이 아버진 굉장한 분이래. 자가용 타고 학교 오시지 않아?”

용이는 학교도 싫어졌다. 선생님도 싫어졌다. 용이 아버지는 술만 마시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까지 용이를 업신여기나 보다. 일봉이 자식만 편들어 주고…….¹⁸⁾

16) 이원수, 「꼬마 옥이」, 『이원수 아동문학전집 3』, 웅진출판사, 1993, pp.46~47.

17) 1950년대 잡지와 반공주의에 대한 목록은 선안나, 앞의 논문, pp.71~72를 참고하기 바람.

마음의 병으로 술주정뱅이가 된 아버지, 몸이 아픈 어머니, 편애하는 선생님, 의리를 저버린 친구들. 용이가 등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어 보인다. 모든 것이 상실된 동심이 찾아 든 곳은 陰地에서 노는 아이들이었고, 용이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인생을 걷게 된다. 겉보로 안 보이려는 허세로 인해 강도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심지어는 사고로 소녀를 죽이고는 살인자가 되어 쫓기다가 결국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판잣집에 깔려 죽음을 맞게 된다.

여기까지가 이 소설의 전반부이자 현실 공간이다. 아버지를 포악한 술주정뱅이로 만든 마음의 병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전쟁이 양산해 낸 상처임을 짐작할 수 있다. 유일한 안식처인 학교마저 권력과 돈으로 아이들을 편애하고, 가장 즐거워야 할 소풍에서 조차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용이. 한 줄기 빛도 들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다가 빠져 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 결국 숨이 막혀 죽어가는 소년을 지켜보는 독자들은 미어지는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결국 용이를 고립된 영혼으로 몰고 간 것은 몰인정한 인정세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남과 북의 대립적 구도를 통해 선명한 편가르기와 적개심을 부추기는 반공주의와 구분되는 문제의식이다. 진정 해쳐 나가야 할 문제는 우리 안에 있음을 웅변하고 있다.

고립된 영혼과 어둠으로 꽁 막힌 현실은 이어지는 환상 공간을 더욱 빛나게 하는 대비적 효과를 가져 오기에 충분하다. 전반부가 현실문제에 깊이 착근하여 갈 곳 없는 동심을 그린 막힘의 세계를 보여준 것이라면 후반부 환상공간은 문제 해결을 통해 희망을 제시하는 빛의 세계라 할 수 있다. 이원수의 환상공간을 윤토피어나나 도원경의 세계로 폄하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우르자면, 이원수는 반공이데올로기나 피상적 세계를 넘어 아이들의 삶을 내밀하면서도 질박한 모습으로 표현하려 하였다. 이 시기는 마해송 뿐만 아니라 강소천¹⁸⁾, 박경중, 장수철, 박홍근, 김익섭 같은 월남 아동문학가를 중

18) 이원수, 「아이들의 호수」, 『이원수 아동문학전집4』, 웅진출판사, 1993, p.147.

19) “국군들이 삼팔선을 넘어 북으로 북으로 막 쳐들어올 때, 우리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먼저 용감하게 나와서 우리 국군들을 환영했고, 빨갱이를 모두 잡아 없애자고 한 청년들을 동원시키지 않았던가?” 강소천, 「방패연」, 강소천 아동문학전집 1권, 교학사, 2006, p.177.

심으로 한 반공주의가 지배적 담론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가벼이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뛰어난 주제의식에도 불구하고 미학적인 수준은 불완전하게 다가온다. 그것은 판타지 문학으로서의 불완전성이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주인공들이 카오스 인자로 기능하지 못하고 수동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데에 있다. 판타지 문학에서 주인공은 기존의 질서를 허물어뜨리고 혼돈을 물고와 새로운 세계로 나가게 하는 역동적이고 주체적 인물²⁰⁾로 형상화된다. 따라서 초자연의 세계는 이미 형성되어진 세계라기보다는 인물이 1차 세계를 거스르며 만들어 가는 세계인 셈이다.

이에 비해 이원수의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 카오스의 역할보다는 2차 세계, 즉 초자연 세계를 통해 안식을 얻는 데 치중하고 있다. 인물들은 무한한 사랑 또는 시간의 역주행을 경험하면서 정서적 치유와 안정을 획득한다. 하지만 주인공의 의지로 밀고 나가지 못하고 ‘우연적 환상’이 제공해 주는 안락함은 어린 독자들에게 강력한 삶의 에너지를 갖게 하기 어렵다. 두 개의 시공간은 개별적인 존재태가 아닌 서로를 ‘연결’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잉태하는 역동적인 세계이기에 그 곳을 사는 주체의 모습은 의당 문제를 헤쳐 나가는 역동적인 인물이어야 맞다. 고립된 현실과 간절한 욕망이 획득한 환상 공간이라 할지라도 주인공이 여기차게 만들어 가는 세상일 때 회복과 위로는 현실로 환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 욕망의 발로에서 비롯된 계몽적인 주제의식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표층에 유유히 떠다니는 계몽성은 무한한 상상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환상공간의 내적 리얼리티를 확보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독자가 환상성을 즐기는 이유가 현실의 자명한 질서들이 전복되면서 느껴지는 통쾌함에 있다고 본다면 초현실의 세계는 그 방식에 부합된 질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지나치게 앞 선 나머지 현실의 틈새인 2차 세계에서조차 작가의 의도가 단선적인 방식으로 제시되고 말았다.

20) 마리아 니콜리예바, 『용의 아이들』, 문학과 지성사, 1998, p.70.

2) 혈육의 그리움과 자기 성찰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전쟁 고아만도 5만 9천명²¹⁾이었고, 평균 1가구당 최소한 1명의 피해²²⁾를 입었다는 당시 기록은 그 누구도 전쟁의 광포성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음을 의미한다. 전쟁으로 고아가 된 옥이(꼬마옥이), 전쟁 때문에 죄 없이 죽어 별이 된 아이들(달나라의 어머니), 전쟁으로 오빠를 잃은 정이(정이와 오빠), 폭력적인 세상에 분노하는 아이(큰 세상과 작은 세상), 가난과 어른들의 폭력으로 큰 죄를 짓게 되는 용이(아이들의 호수)가 모두 동시대를 살았던 어린이들의 모습이었다.

혈육의 상실이라는 자기 경험에 즉한 소재주의는 1950년대 문학의 일반적 특징 중 하나이다. 소재 면에서만 본다면 이원수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쟁 때 잃은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 자식을 지키지 못한 죄의식에서 출발하여 자기성찰로 귀결되는 작품들이 빈번한데, 「달나라의 어머니」, 「꼬마옥이」, 「빠꾸기 소년」, 「그림 속의 나」, 「구름과 소녀」, 「여름밤의 꿈」, 「아이들의 호수」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성향은「꼬마 옥이」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내가 날아가는 소녀를 혼자 보내던 때, 상희는 무서운 불길 속에서 눈으로 차마 볼 수 없는 처참한 죽음을 한 것이었다. 하늘 나라로 고이 올라갔으면…… 편안히, 이 세상보다 편안히 살기나 했으면

(중략)

날지를 못해 땅 위에 내려서는 아버지를 보고 “아빠, 같이 가! 같이 가!”하고 울며 불렀을 상희를 생각하면 나는 그냥 가슴을 찢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²³⁾

21) 1959년 현재, 파악된 고아만 기록된 것임. 강인철, 〈한국전쟁과 사회의식 및 문화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백산서당, 1999, p.216. 강준만, 앞의 책(1권), pp.88~90에서 재인용.

22) 박현채 엮음, 『청년을 위한 한국 현대사』, 소나무, 1994, p.124.

23) 이원수, 『꼬마옥이』, 창비, 2006, pp.177~178.

이원수가 전쟁으로 잃은 딸이 상옥이었는데, 작품에 등장하는 옥이와 상화는 그의 딸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누구의 위로도 귀에 들리지 않았다고 말하는 화자는 다름 아닌 이원수 자신이었다. 죽은 딸을 위로하기 위해 만돌린을 배우고 울음 섞인 소리로 자장가를 들려주는 곡진함은 그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대변한다.

「빠꾸기 소년」과 「그림 속의 나」에서는 골짜기와 절벽에서 떨어진 소녀를 구하지 못한 소년의 죄책감이 공통적으로 드러나 있다. 뿐만 아니라 신비한 소년- 어린 시절의 나-을 만나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본다는 플롯도 공유하고 있다.

“선생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이미 여러 해 전이에요. 혜영이가 이 언덕 위에서 나비 잡는 걸 도와 주려고 따라 왔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쳐 그걸로 그만 죽었어요. 나는 그 때문에 날마다 밤마다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²⁴⁾

그림 3.

소녀 하나가 절벽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쳐 피가 흐르고 있다. 위에서 소년 하나가 내려다보고 있다. 내려가서 다친 소녀를 구해야 할 것이건만, 소년은 겁만 내고 절벽 위에서 내려다보고만 있다.²⁵⁾

소년이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던 자신의 죄의식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어린 시절, 한 소녀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순수했던 나의 분신을 통해 다시 살아나고,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에 시달린다. 이 소년 역시 자식을 지키지 못한 무능력한 아버지, 바로 작가 자신이었다.

혈육을 잃은 개인의 슬픔이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형성한 것은 강소천도 마찬가지다. 강소천은 「꿈을 파는 집」, 「세월」 등에서 고향에 두고 온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24) 이원수, 「빠꾸기 소년」, 『이원수 아동문학전집3』, 웅진출판사, 1993, p.114.

25) 이원수, 「그림 속의 나」, 위의 책, p.118.

나는 그제서야, 이 한 쌍의 새가 나를 데리고 고향집으로 가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그럼 곧 떠나자. 쫑쫑쫑.”

우리 세 마리 새는 하늘 높이 날아올라 북쪽으로 북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중 략)

그러자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세 아이, 그것은 틀림없는 어젯밤 꿈 할머니에게 준 사진에 있는 내 아이들이었습니다.

누더기를 입고, 맨발을 벗은 파리해진 세 얼굴!

나는 나뭇가지에 앉아 그만 목놓아 울어 보리고 말았습니다.²⁶⁾

작가에게 자신이 경험한 세계가 작품의 질료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물며 전쟁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슬픔이 작품으로 발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자기 욕망이다. 그러나 유사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두 작가를 분별 짓는 중요한 지표는 자기 성찰을 통해 실천 의지로 나아가려는 힘의 차이에 있다.

나는 내 마음의 귀한 한 조각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못나고 사람답지 못해서 내 마음의 아름다운 한 조각이 나를 버리고 달아나 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 지금의 나는 산 송장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 략)

‘이제부터라도 나를 떠나 버린 내 소년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며 거리에 나섰습니다.’²⁷⁾

‘바른 길을 찾아 살면서 항상 정순이를 생각하고 살아갈 테다’²⁸⁾

지금의 나를 ‘산 송장’이나 다름없다고 표현한 부분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반성을 해야 할 주체는 전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자들에게 있었던

26) 강소천, 「꿈을 파는 집」, 앞의 책, p.19.

27) 이원수, 「뽀꾸기 소년」, 앞의 책, p.114.

28) 이원수, 「아이들의 호수」, 앞의 책, p.124.

시기. 우리에게 남은 건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는 지배 담론 속에서 ‘떠나버린 나를 찾아야겠다’는 독백은 웅혼한 올림마저 느끼게 한다. 개인적 경험이 낭만적 결말이나 몽환적 세계에 머무는 그리움이 아니라 자기반성을 통한 실천 의지로 귀결되었다는 점에서 ‘소재주의’를 벗어난 현실 극복의지를 엿볼 수 있다.

결국 ‘자기반성’은 이원수의 작품이 제 경험을 뛰어넘지 못하는 소재주의 문제를 무마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해 준 셈이다. 「구름과 소녀」에서 더러운 물이 된 구름이 그러했듯 파도에 몸을 부수고 갈고 닦으며 깨끗한 물로 거듭나기 위한 지난한 노력은 우리 문학이 놓치지 말아야 할 주제 의식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재주의의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품 곳곳에는 독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정서적 거리감이 존재한다. 개별적 경험이 보편성을 획득하지 못하면 독자의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 「그림 속의 나」에서 소년은 북받치는 슬픔에 죽음까지 결심까지 하고 있지만, 정작 독자가 받는 감동은 그다지 크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는 이미 나를 떠난 아이와 나를 떠난 깨끗한 어릴 적의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북받치는 슬픔에 견디지 못하여 다리 난간을 붙들고 영영 울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죽어 버릴까 보다’²⁹⁾

특히나 자기 경험에 즉해 있는 충격적인 사건인 경우에는 정서적 토로에 집중한 나머지 화자나 독자의 존재를 냉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쉽다. 작가와 화자의 거리가 지나치게 밀착될 경우 독자와의 거리는 오히려 멀어지게 된다.

29) 이원수, 「그림 속의 나」, 앞의 책, p.122.

3) 사랑의 전파와 서정적 진실

이원수 동화는 50% 정도가 '사랑'을 주제로 삼고 있다.³⁰⁾ 동화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특이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다만, 1950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보진대 사랑의 내포성이 일상적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거나 관념적으로 형상화되는 것에 대한 경계는 가져야 한다.

이원수의 사랑은 따뜻한 사쓰를 사주는 형, 동생의 학비를 위해 일하는 차장, 아버지를 잃은 친구를 격려하는 순희, 식모 옥이, 소녀를 죽인 용이, 신문 팔이 용준이, 폭행과 강탈을 일삼는 장씨에 이르기까지 인물 층이 다양하다. 이것은 사랑의 스펙트럼이 그 만큼 광범위했음을 의미한다.

「새해선물」(1955), 「눈 속의 꽃」(1957), 「버스차장」(1959), 「달나라 급행」(1959)처럼 형제애를 다룬 작품에서부터 「구름과 아이들」(1955), 「정이와 하모니카」(1955), 「달과 순희」(1957), 「밤골로 가는 길」(1957), 「층층대」(1958), 「노래의 선물」(1958), 「강물이 흐르듯이」(1958), 「꽃바람 속에」(1958)처럼 우정을 주제로 한 작품들은 모두 아이들의 일상적인 삶을 치밀하게 관찰한 작품들이다. 그러나 가족애나 우정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아동문학이라면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보편적 소재일 터, 이것을 운운하는 것은 억지스럽다. 따라서 본고는 이 작품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의 작품 곳곳에 드러나는 사랑의 발현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난으로 소외된 어린이들에서부터 동식물에 이르는 포용적인 사랑이다. 「새해선물」, 「뽕장수」, 「층층대의 옥이」, 「아이들의 호수」, 「용이의 크리스마스」, 「용준이 가는 곳」과 같은 작품에서는 전후 시기, 가난에 허덕이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숨 쉬고 있다.

또한 꽃, 병아리, 고양이, 개구리, 잠자리와 같은 동식물에 대한 사랑에도 매우 각별하였는데 특히 5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동식물을 소재로 한 작품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1957년 「닭」을 시작으로 「산새」(1957), 「꽃씨」(1958), 「봄 나들이」(1958), 「욕심꾸러기 닭」(1958), 「고양이」(1959), 「우리

30) 중촌수, 앞의 논문, p.43.

고양이 나비」(1959), 「수탉」(1959), 「바둑이는 어느 곳에」(1959)에 이르기까지 빈도가 점차 증가하여 60년대 초반 그의 단편 작품들의 주요 소재로 자리를 잡는다.

이러한 경향을 두고 현실에 대한 도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실 대응의 강도가 높았던 「민들레의 노래」(1960-61)나 「메아리 소년」(1964)이 1960년대 초반에 발표되었던 작품이라는 것을 본다면 중·장편에서 다루지 않은 소재의 확대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둘째, 폭력에 대한 심판과 관용의 입장을 동시에 견지하고 있는 사랑이다. 산새를 죽인 아이, 산새알을 훔쳐 먹은 아이, 개구리를 죽인 아이, 잠자리를 죽인 아이, 약한 자를 괴롭히는 어른, 소녀를 죽인 아이 등 동물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잔인한 폭력과 살인이 저질러진다. 그러나 동심이 보호 받지 못한 시기, 사악함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던 아이들이 저지른 죄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쉬운 답을 내놓기 어렵다. 그의 작품에는 이에 대한 진지한 응대가 담겨있다.

“용이의 죄에 대해서 벌을 받을 사람은 용이 한 사람이 아니라, 용이 아버지, 용이의 선생, 용이의 동물들까지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용이에게는 죄 받은 사람들의 고생하는 모습을 두루 구경시켜서, 용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 두고 본 다음에 다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믿는 바입니다.”³¹⁾

배덕 행위에 대한 엄단과 관용이 공존하는 애정. 죄를 뉘우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고통스러움을 이겨내고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한다. 이는 이원수의 어린이에 대한 올바른 애정 의식을 엿보게 하는 부분이다. 특히나 한 번 저지른 잘못은 쉽게 용서될 수 없다는 사실도 놓치지 않는다. 내가 준 고통만큼 되돌려 받아야 하는 인과응보의 타당성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

31) 이원수, 「아이들의 호수」, 앞의 책, p.201.

내가 놀란 눈으로 그것들을 보고 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고양이 새끼만한 범 한 마리가 와서 나와 내 동생을 한꺼번에 입에 물고 가는 것입니다.

조그만 나와 동생이 ‘으악!’ 소리를 지르며 놀라 울었습니다. 그래도 그 범은 거리낌없이 우리를 물고 가더니 어느 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³²⁾

이 때 잠자리는 커다란 입을 벌름벌름하더니,

“허리를 잘라 줄까? 머리를 잘라 줄까? 어서 대답을 해라. 너는 내 꼬리를 잘랐으니까 너도 잘려야 하지 않아?”³³⁾

동식물을 함부로 괴롭히고 죽이거나 친구를 때리거나 심지어는 죽게 한 아이들. 그 죄는 혹독한 시련을 통해 심판받게 된다. 산새알을 훔쳐 먹은 아이는 인형만한 아이로 변해 새끼 범에게 잡혀가고 잠자리를 죽인 아이는 그와 비슷한 시련을 겪게 된다.

셋째, ‘눈물’로써 험악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서정적 진실이다. 눈물은 불지옥을 꽃 천국으로 만들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별거벗은 아이에게 평안의 기적을 가져다준다.

내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이게 웬일입니까? 활활 타던 불길 이 모두 붉은 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하시던 어머니가 꽃송이 틈에서 웃으며 팔을 벌렸습니다.³⁴⁾

「꼬마 옥이」와 「아이들의 호수」에서 눈물의 기적은 모두 ‘지옥’의 공간에서 일어난다. 특히 「아이들의 호수」의 경우에는 눈물뿐만 아니라 일곱 색 무지개나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냉정한 심판자들을 감동시키는 기재로 작용한다. 거짓 연민은 세상을 더욱 악하게 만들 뿐이다. 그악한 현실을 바꾸는 것은 거대

32) 이원수, 「파란 구슬」, 앞의 책, p.210.

33) 이원수, 「아이들의 호수」, 앞의 책, p.208.

34) 이원수, 「꼬마옥이」, 앞의 책, p.52.

한 힘이 아니라 진정성이 담겨 있는 ‘눈물 한 방울’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눈물’은 참회와 희생을 상징한다. 「아이들의 호수」에서 심판관을 감동시킨 눈물은 자신의 엄청난 실수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반면에 「꼬마옥이」에서의 눈물은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어머니를 구하려했던 자기희생과 맞닿아있다. 결국, 지옥같은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자기성찰과 희생에 있다는 서정적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이다.

4. 마무리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50년대 이원수 동화와 아동소설의 존재 양태는 개인과 사회적 차원이 중층적으로 결합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원수는 전쟁으로 입은 개인적 슬픔을 형상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로 내몰린 아이들과 시대가 품고 나가야 할 정신을 놓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꾸준히 자신을 성찰해 나갔다. 이러한 자기 응시의 도정이 있었기에 관념주의와 반공주의의 거대한 벽을 넘어 설 수 있었던 것이다.

1950년대 반공주의 문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이는 아동문학의 본질과도 정면으로 대치하는 문제다. 빼뚫어진 세계관 속에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아 본 들, 감동있는 작품이 나올 리가 만무하다. 이원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환유된 환상성을 통해 현실과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반성을 통해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도 하면서 서정적 진실을 전파해 갔다. 구체적인 현실과 올바른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엮여가는 픽션은 현실보다 더욱 미더운 세계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엄격한 검열의 대상으로 고립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은 그의 고투는 높게 평가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현실인식은 작품 세계를 보다 구체적인 삶으로 형상화시키려는 노력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전쟁이나 가난, 동심을 소재로 하였더라도 현실에 발 닿지 못한 세계는 관념적이고 공허하게 다가 올 뿐이다. 똑같은 ‘눈물’이라 하더라도 감상적인 화해에 머물기도 하고 때로는 그악한 현실을 구하는 도저

한 진실이 되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발 딛고 있는 구체적 삶을
질료로 삼았기에 동심주의니 교훈주의니 하는 관념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었
던 것이다.

문학은 현실의 반응이며, 작가는 그 시대 그 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적 가치
를 추구하여야 하고 작가는 이를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의 작품이
시대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온 몸으로 역사를 관통하고
묵묵하게 정진했던 작가정신은 5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더 나아가 아동문학의 보편성으로 다가오는 데 부족함이 없다.

지금까지 논의된 이원수의 1950년대 문학적 특질은 주제의식의 발현 양상
에 관해서는 미약하나마 진전을 보았으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천
착이 여전히 미흡해 보인다. 가령 미학적인 한계로 지적한 문제들은 매우 거
칠게 다루어졌다. 단선적으로 형상화된 환상공간과 평면적인 인물, 2차 세계
로 통하는 '문'의 단순함, 계몽적 담론, 감정의 범람 등은 현재의 문제들과 연
관하여 좀 더 살살이 뜯아 볼 일이다. 또한 소론의 한계상 소개 차원에 머물렀
던 다른 작품들까지도 총괄하여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조망되어야 하는 과제
를 안고 있다. 이를테면 미의식과 표현과의 관계, 시공간의 특징, 현대 아동들
의 수용의 문제 등과 같이 주제론이 접근하지 못한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경
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이원수, 『이원수 아동문학전집 3』, 웅진출판사, 1993.
_____, 『이원수 아동문학전집 4』, 웅진출판사, 1993.

논저

- 강소천, 「방패연」, 『강소천 아동문학전집 1권』, 교학사, 2006.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50년대편 1,2권), 인물과 사상사, 2004.
김송, 「전쟁하의 단상 (나의 피난일기장에서)」, 『新潮』, 1951.
박현채 엮음, 『청년을 위한 한국 현대사』, 1994, 소나무.
선안나, 「1950년대 동화·아동소설 연구 -반공주의를 중심으로」, 성신여대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06.
원종찬, 『아동문학과 비평정신』, 창작과 비평사, 2001.
이재철, 『兒童文學의 理論』, 螢雪出版社, 1994.
이재철, 『아동문학개론』, 서문당, 1996.
증춘수, 「이원수 동화·소년소설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마리나 니콜라예바, 『용의 아이들』, 문학과 지성사, 1998.
Rosemary Jackson, 『환상성』,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문학동네, 2001.